탄산마그네슘

탄산마그네슘은 고무 · 파인세라믹 · 형광도료 · 전자공업약품 등에 사용되는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.
생산이 어렵고 내수시장이 협소해 국내 생산은 현재까지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.
이에따라 우신화학 등 국내 생산기업들이 생산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.
탄산마그네슘의 국내 수요량은 2000~2500여톤으로 추정되는데 주 수요처인 고무분야의 수요가 국내 신발산업의 해외이전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.
수입량은 93년 2600톤에서 94년에는 11% 감소한 2300여톤으로 나타났다.
주 수입국은 일본과 미국, 이스라엘 등으로 일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.
94년 국가별 수입실적을 보면 일본이 2300톤으로 전체수입량의 98%을 차지하고 있으며,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소량 수입되고 있다.
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일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가격은 일본산 BALLTT기준 Kg당 950~960원선으로 나타났다.